

'V10효과' ... 광주경제 '훈풍'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지역 경제계가 들썩이고 있다. 광주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매출이 급증하고, 광주은행과 지역 백화점들이 내놓은 '타이거즈 V10 상품'은 날개돋힌 듯이 팔렸다. 지역 경제계는 더욱이 이번 우승을 지역경제 회생의 기회로 삼기 위해 다채로운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V10 경제효과는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혜자는 기아차=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따른 최대 수혜는 아무래도 '기아'다.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 우승 입장수입으로만 역대 최고액인 25억2천 만원을 벌어 들었다. 정규시즌에도 광주 무등경기장을 통해 사상 최고액인 18억원의 입장 수입을 올렸다. 구단 캐릭터 상품과 사인볼, 막대풍선 등 기념품도 지난해(2억원)보다 88%(3억7천800만원) 이상 팔렸다.

타이거즈의 성적은 기아차의 실적 상승을 견인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끌찌를 하던 지난 2007년에는 영업적자에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22%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반기 타이거즈가 1위로 질주하면서 점유율을 월간 최고 31%까지 끌어올렸다. 더욱이 기아차는 올 3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6% 늘어난 4조5천95억원의 매출을 예상하면서 막대한 광고 효과와 얻었다.

광주은행은 가슴보호대 광고비로 5천만원을 지불했지만 은행 지명도 상승 등으로 얻은 광고 효과는 지출금액의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면서 전국 시청률이 인기 드라마를 능가하는 16~17%까지 치솟아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

광주은행이 기아 우승기원 특판 상품으로 내놓은 '플러스디모아 적금'에 가입한 고객들도 이자 대박을 터뜨렸다.

◇광주은행 광고 대박=금융계에선 광주은행과 광주은행 적금 상품에 기여한 고객들이 대박을 터뜨렸다. 광주은행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기아 타이거즈 포수의 가슴보호대(Chest Protector)에 은행 이름



쏘울 탄 지역경제

기아차 광주공장이 생산하는 쏘울은 KIA 타이거즈의 정규리그 연승행진에 빌미로 판매량이 급증했다. 한국시리즈 우승이 확정된 24일 MVP 나지완 선수 '쏘울'을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판매 실적 '쑥쑥' ... 최대 수혜

光銀, 우승 기원 적금 유치 짭짤

백화점 등 유통업체 야구 용품 '불티'

이 새겨진 광고를 했다가 타이거즈가 정규시즌 1위에 한국시리즈 정상까지 오르면서 막대한 광고 효과를 얻었다.

광주은행은 가슴보호대 광고비로 5천만원을 지불했지만 은행 지명도 상승 등으로 얻은 광고 효과는 지출금액의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면서 전국 시청률이 인기 드라마를 능가하는 16~17%까지 치솟아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

광주은행이 기아 우승기원 특판 상품으로 내놓은 '플러스디모아 적금'에 가입한 고객들도 이자 대박을 터뜨렸다.

◇광주은행 광고 대박=금융계에

선 광주은행과 광주은행 적금 상품에 기여한 고객들이 대박을 터뜨렸다. 광주은행은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기아 타이거즈 포수의 가슴보호대(Chest Protector)에 은행 이름

여전에 현재 잔액만도 1천620억원에 달한다. 추가 적립에 따른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3천580억 원이 이 상품에 몰린 셈이다.

은행측은 기아의 우승으로 추가로 제공될 이자는 5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 판촉전=타이거즈의 정규시즌 우승으로 야구용품 판매가 급증했던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선 'V10 마켓팅'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박3일 동안 '기아 타이거즈 V10 축하상품전'을 개최, 100대 상품전, '도루상품전', '기습번트 상품전' 등을 초청한 우승 축하 괜 사인회와 치어리더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광주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 음식점 등도 조만간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 세일이나 할인 등 이벤트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전에서는 장르별로 선착순 한정 특가상품을 판매한다. 또 기습 번트 상품전에서는 수량이 적은 제품을



한꺼번에 싸게 내놓을 생각이다.

기아 타이거즈 공식 후원업체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2·3·5·8층 이벤트홀에서 기아타이거즈 V10 우승축하 기념 '유명브랜드 축하 쇼핑찬스'를 마련하고, 각 층 행사장에서 '특보 상품전',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브랜드 스페셜 데이'를 통해 유명 브랜드를 지원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종범, 김상현 선수 등을 초청한 우승 축하 괜 사인회와 치어리더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광주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 음식점 등도 조만간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념 세일이나 할인 등 이벤트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필수·윤현석·김지기 기자 bungy@

이상 15일까지 가입 고객은 4만5천

상품전에서는 수량이 적은 제품을

상품전에서는 수량이 적은 제품을